

<협창기문(俠娼奇聞)>에 나타난 죽음의 성격

조혜란*

<차례>

- I. 서론
- II. 작품의 소재 원천에 대한 고찰
 - 1. 남녀 주인공의 신분 및 이름
 - 2. 남녀 주인공의 관계 및 상황 대처 방식
 - 3. 평결 및 실화(實話) 여부
- III. <협창기문>에 내포된 죽음의 양상
 - 1. 서사 단락 및 표현 방식
 - 2. '창기'의 재현 양상
- IV. 결론 : 욕망으로서의 죽음

<국문초록>

이옥의 「문여(文餘)」에 실린 25편의 전 중에는 <협창기문(俠娼奇聞)>이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은 서울에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한 기녀가 자신의 기방 손님 중 한 사람이 을해옥사에 연루되어 제주도 관노로 떠나게 되자 그녀 역시 그를 따라가서 화려하게 받들다가 독주와 섹스에 탐닉한 나날로 둘 다 죽음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옥은 그녀에게서 고의(高義)와 의협심을 기려주었고 돈과 이익만 좇는 시정의 사궐에 대해 경계하면서 전을 마치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조선시대 산문에서는 보기 드문 죽음의 양상이 드러나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 작품은 결국 두 남녀가 동반 자살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죽음을 다룬 조선시대의 글들은 충효열 등 유교적인 가치를 위해 담대히 죽음에 나아가는 태도에 대한 찬양이거나 아니면 의협을 기리기 위해 유교적 규범에서 약간 벗어난 죽음을 다룬다고 해도 대개 유교적 규범 안에서 수용 가능한 범주에 속해 있었다. 이에 비해 <협창기문>에 나타난 죽음은 퇴폐적이며 향락

*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적인 죽음의 양상을 보이며, 두 남녀는 자신들의 삶을 방기해 버리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협창기문>에서 다루는 사건과 비슷한 정황의 이야기들이 몇 편 더 있다는 사실이다. 그 작품들은 『청성잡기』와 『양은천미』에 수록되어 있다. 본고는 이 세 작품들을 비교하여 소재 원천이 되는 사건 및 남성 인물이 누구 일지에 대해 추정해 보고, <협창기문>의 서사가 갖는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작품에서 중요한 요소는 단연코 그 기생인데, 고찰 결과 그녀는 서사의 주동자이고 동반 자살의 주동자이며 손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기생일 뿐만 아니라 연모 하던 남자를 위해 자신의 모든 재물을, 그리고 스스로를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인물이 드러났다.

<협창기문>에 나타난 죽음은 중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수동적인 선택의 결과도 아니었다. 이 작품에 나타난 죽음은 삶의 출구가 막혔을 때 적극적으로 기꺼이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욕망으로서의 죽음이다. <협창기문>은 죽음에 이르는 찰나적이고 퇴폐적인 분위기와 적극적인 선택으로서의 죽음을 보여 준다. 이옥은 그 기녀의 선택을 의협심으로 읽어냈지만 그녀가 선택한 죽음의 양상에는 이미 탈중세적인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주제어 이옥, 협창기문, 전(傳), 기생, 을해육사, 동반자살, 죽음, 기방, 의협, 술, 독주, 섹스, 성애

I. 서론

조선시대 문집에 수록된 글을 보면 제문, 행장, 묘비명, 묘갈, 비지 등 죽음과 관련한 글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이런 글을 보면, 가까운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는 매우 애통해 하는 경우가 많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애이불비(哀而不悲)’를 실천하기 위해 지나친 슬픔에 이르지는 않도록 스스로의 감정을 억제하는 경우도 보인다. 때로는 자살을 기린 경우도 눈에 띈다. 이 경우 자살은 유교적 이념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죽음에 나아

간 이들에 대한 기록으로 대개 열녀 혹은 충신들의 죽음을 입전한 형태이거나, 아니면 의협과 같이 18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협(俠)에 대한 관심과 함께 언급되는 죽음이 이에 해당한다. 이 같은 글에 나타나는 죽음은 그 죽음에 대해 누군가가 슬퍼하거나 혹은 의연한 태도를 취한다 하더라도 유가적 규범에 비추어 볼 때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는 죽음이 대부분이다.

고전소설에서도 다양한 죽음의 양상이 다루어진다. 고전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양상을 분류한 기존 논의에 따르면, 그 죽음은 개인의 힘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저항적 수단으로서의 죽음, 재생이나 환생을 통해 현세에서의 숙원을 해원하는 윤리적 규범의 실현을 위한 죽음, 선과 악의 대결에서 선의 최종적 승리를 보여주기 위한 죽음, 도교나 불교 등 특정 사상에 의거하여 신선계나 불교계에 귀의하려는 죽음¹⁾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적장을 했기에 죽은 후 천상계로 돌아가야 한다거나 혹은 원한 때문에 원귀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죽어 충효열로 기려지든 간에 고전소설에서 나타나는 죽음 역시 유가적 규범의 범주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다. 적장소설은 도가적 세계관에 입각한 죽음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작품의 비중은 현세적 가치에 놓여 있으며 불교적 귀의를 보여주는 <구운몽> 역시 서사의 상당 분량은 현실계에서의 욕망 성취를 다루고 있다.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면 사라지는 귀신의 형상은, 귀신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흩어지는 기의 울결로 설명하는 유교적 귀신관과도 상통한다.

조선의 죽음 관련 서사는 사실 기록과 허구적 서사를 막론하고 신중하고도 온건한 서술 태도를 보이며 충효열과 관련되지 않은 자살을 미화한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이옥의 <협창기문(俠娼奇聞)>에서 죽

1) 이종은 외, 「한국문학에 나타난 한국인의 우주관과 생사관 연구」, 『한국학논집』30,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97, 144.

음을 서술하는 방식은 이와는 달리 차별화된 지점을 보여 주목을 요한다. 이옥(李錡: 1760-1815)은 <협창기문>에서 기꺼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기생의 형상을 그려내고 있는데 그녀의 죽음은 유교적 이념을 내면화해서 선택하는 다른 죽음 서술과는 차이가 있다. 이 작품의 기생은 독주와 잠 자리에 탐닉해 죽는 자살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자신의 기방을 출입했던 손님과 함께 죽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 작품에서는 유교적 이념 수호에 대한 의지가 나타나는 대신 삶의 출구가 막혔을 때 선뜻 화려하게 죽음으로 나아가는 낭만적이면서도 퇴폐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옥 역시 유가적 지식인임에는 틀림없으나 그의 문학적 취향이나 기질이 이 작품의 분위기를 그렇게 이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이 더 있다. 본고는 이 작품들과의 비교를 토대로 조선시대 죽음 서술 방식에서 독특한 개성을 보이는 이옥의 <협창기문>에 나타난 죽음의 양상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²⁾ 비교 대상인 두 작품들에서는 실명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II장에서는 세 작품의 비교 대조를 통하여 <협창기문>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혹은 이옥의 전적인 창작인지를 살필 예정이다. 그 결과, 차이점이 드러난다면 이를 토대로 <협창기문>에 나타난 고유한 서술 방식에 대한 고찰이 가능할 것이며 여기에는 작가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III장에서는 이 작품이 내장하고 있는 죽음의 양상에 대해 살필 예정인데, 이를 위해 작품의 서사 단락과 등장인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등장인물의 경우에는 작품 문면에 행위와 발화가 언표되어 있는 여성 인물인 창기의 재현 양상을 중심으로 한 분석을 전개할 것이다. IV장은 결론을 겸하는 장으로, 이

2) 연구 대상으로는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에서 펴낸 『이옥전집』을 선택하였다.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이옥전집』2, 소명출판, 2001, 224-225(번역문), 201-202(원문).

장에서는 <협창기문>에서 보여주는 죽음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 같은 논의를 통해 유교적 범주에서 벗어난 자살을 서술한 이 작품이 이옥 고유의 서사인지 혹은 당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그 정도를 가늠해 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조선시대 산문에서는 보기 드문 자살의 예를 다룬 <협창기문>에 나타난 죽음의 성격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작품의 소재 원천에 대한 고찰

이옥이 남긴 25편의 전(傳) 중 한 작품인 <협창기문>이 매우 독특한 작품이기는 하나, 허구적인 이야기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옥의 글 외에 다른 두 편의 글에서도 매우 유사한 사건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대중(成大中: 1732-1812)의 『청성잡기(靑城雜記)』 「성언(醒言)」에 수록된 기생 취섬(翠巖)의 이야기³⁾와, 작가 미상의 한문단편집 『양은천미(楊隱闡微)』⁴⁾에 수록된 제 15화 <추향애사심밀양(秋香愛死沈密陽)>이 바로 그 작품들이다.⁵⁾

3) <취섬>은 김종태 외(역), 『국역 청성잡기』, 민족문화추진회, 2006, 159-161, 원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청성잡기』 성언, 52b, 53a면을 참고하였음. 『국역 청성잡기』에서는 이 일화의 제목을 <의리를 지킨 기생>이라고 하였는데 원래는 소제목 없이 「채언(揣言)」, 「질언(質言)」, 「성언(醒言)」 세 부분으로 나뉘어 편찬된 책이다. 본고는 원문 중 시작 두 글자를 따서 <취섬>이라고 하였다. 원문 확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을 참고했는데 『청성잡기』의 저자는 성대중이나, 장서각 소장본이 성대중의 수택본이라는 정보는 없으므로 이 이본의 필사자는 미상이다.

4) 『양은천미』를 번역한 정명기에 의하면, 이 자료는 작가 미상이고, 편찬 시기는 1907년에서 1919년 사이로 추정되며 36화의 한문야담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신성·정명기 역, 양은천미 해제, 『양은천미』, 보고사, 2000.

5) 이후로는 <협창기문>은 <협창>으로, 『청성잡기』의 수록 작품은 <취섬>으로, <추향애사심밀양>은 <추향>으로 줄여서 표기하기로 한다.

이 세 작품은 모두 한때 한양에서 유명했던 기녀와 형제의 역모 죄에 연루되어 급전직하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뀐 양반 남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세 작품 모두 그 기녀들은 몰락한 양반 남성을 따라 나섰고 극진하게 섬겼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저자들은 모두 기녀의 의로움을 기리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세 작품이 과연 한 가지 사건을 근원으로 하여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본고는 남녀 주인공의 신분 및 이름, 남녀 주인공의 관계 및 상황 대처 방식 그리고 평결 및 실화(實話) 여부 등의 몇 가지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1. 남녀 주인공의 신분 및 이름

<협창>의 여자 주인공은 이름은 제시되지 않은 채 서울[京師]의 창기[一娼]라고만 되어 있으며 미모와 기예[姿色技藝]가 당대의 최고였다고 한다. 남자 주인공은 그 기생의 기방에 드나들던 손님 중 한 명이며, 역시 이름은 제시되지 않는다. 다만 을해옥사 때 형의 죄에 연루되어 제주 관노로 떠나게 된 처지에 놓인 인물이라는 점만 언급하고 있다. <취섬>의 여자 주인공은 이름이 취섬이며, 함양의 기녀[咸陽妓]였는데 선상기로 뽑혀 자태와 재주[態藝]가 당대의 으뜸으로 한때 서울에서 유명했던 인물로 소개되고 있다.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심약(沈鑰)으로, 함양 근처 고을 원으로 왔다가 함양에 돌아와 있는 취섬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심약은 형 심악(沈錫)의 죄에 연루되어 황량한 북쪽과 남해로 유배를 가게 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추향>의 여자 주인공은 이름이 추향이며, 밀양 기생[妓]이라는 정보만 제시되고 있다. 이에 비해 남자 주인공은 심욱(沈鎔)이며 밀양부사로, 영조 때 동생 심악(沈錫)이 사사되는 사건에 연루되

자 스스로 상경하여 죄를 받고 유배 가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2. 남녀 주인공의 관계 및 상황 대처 방식

<협창>의 기생은 도도한 자세를 취했던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⁶⁾ 그녀는 비록 기생이었지만 돈을 지불한다고 다 손님으로 받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품격을 높이 하여 그녀의 기방에 드나들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일정 정도 이상의 높은 벼슬에 있거나 아니면 매우 부잣집 자제들이었으며, 잘 생기고 풍류를 아는 이들이었다. 남자 주인공 역시 이 같은 기준에 부합한 손님이었다. 이옥은 그녀와 그의 관계를 ‘기생이 기뻐하며 사귀던 한 사람[娼之歡一人]’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녀는 그가 제주도 관노로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하룻밤 친구에 불과[不過爲尋常一夕友]’ 하다고 표현하면서 평소 그녀와 가까이 지내는 손님들에게 자신을 위해 행장을 꾸려 달라는 부탁을 한다. 그녀가 기방을 차린 지 십 년 남짓한 동안 친하게 지냈던 이들이 백 명 정도라고 했으니, 남자 주인공은 그 백 명 중 한 사람 정도의 비중으로 그려질 뿐 그 이상의 언급은 없다.

그런데 그런 그를 위해 그녀는 다른 손님들에게 각출을 해서 제주도로 떠난다. 자신의 손님들은 모두 고기반찬에 비단옷을 입고 살면서 궁핍을 모르던 이들인데 그가 지금 제주도에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 ‘자신과 교분을 나누던 이가 굶어 죽는 것은 바로 자신의 수치⁷⁾’이기 때문이라는 논리

6) 그녀는 “그 몸가짐이 매우 고급스러워 손님의 신분이 귀하고도 요부하지 않으면 예우하지 않았으며, 그 중에서도 용모와 신색이 아름답고 명성이 드러나고 풍류에 익숙한 사람이라야 골라 사귀었다. 이 때문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기필코 많지 않았다. 일시 가까이 한 사람 중에 문반으로는 홍문관·승정원 사람이요, 무반으로는 절도사였고, 이 밖에도 오히려 여염의 요부한 자제로 화려한 옷, 날랜 말로 행세하는 자들이었다.”,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이옥전집』2권, 소명출판, 2001, 224.

7) “奴之歡而以餓死, 是奴之恥也”

로 그녀는 자신의 기방에 출입하던 남자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한다. 재물을 넉넉히 가지고 제주도로 간 그녀는 그를 지극히 화려하게 받들면서 미련을 버리라고 충고한다. 그녀는 힘들게 사는 것이 즐기는 가운데 죽는 것만 같지 못하니 즐기다가 죽는 게 어떻겠냐고 제의했고, 그는 그 말에 따른다. 결국 얼마 안 되어 그가 죽은 후 그녀는 그의 장례를 극진하게 치러주고 자기도 폭음으로 죽는다. 결국 둘은 동의하에 자살의 방식을 선택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그 둘이 서로 사랑의 감정을 느꼈는지 혹은 한 쪽이라도 상대방을 마음에 품었다든지 아니면 첩이 되었거나 전적인 사랑을 얻거나 했다는 언급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 죽기 전 그녀는 이웃에게 편지를 주면서 서울에 전해 달라는 부탁을 해 놓는다. 결국 서울의 옛 친구들은 기녀의 뜻밖의 선택에 놀라 장례를 치러주며 그녀는 높은 의를 지니고 있었고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시세를 좇는 이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협창>의 기녀는 자신이 함께 하고 싶은 남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대처한 것만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을 오해했던 남자들에게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방법까지 마련한 것이다.

<취섬>은 선상기에서 풀려 함양으로 돌아온 기녀이다. 그녀가 서울에 머물렀을 때, 지체 높은 재상이 많은 돈과 의복 등으로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 하였지만 그녀는 모두 사절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한다. 당시에 좀 논다는 이들[遊俠]은 취섬이 사는 골목을 모른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정도로 그녀는 장안에서 유명한 기생이었다. 그런 그녀가 함양으로 돌아와서는 이웃 고을의 원인 심약의 수청을 들게 되었다. 심약은 그녀를 총애하여 그녀로 하여금 그를 전적으로 모시게 하였다. 즉 취섬은 당시 부임 온 수령의 사랑을 독차지한 기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심약이 형 심약의 역모 죄에 연루되어 북쪽으로 유배가게 되자 취섬은 재산을 처분하고 따라가 정성으로 봉양하였으며, 심약이 남해로 이배(移配)되자 취

섬도 남루한 차림으로 따라가 맨발로 진흙을 밟으며 물을 길는 등 노동을 하였다. 평소 따르던 사람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는데 차마 쉽사리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취섬의 이런 태도는 서울 상인의 등장으로 드러난 것인데 취섬을 알아본 상인이 ‘이 고생 말고 자기를 따라가면 좋은 옷과 음식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권하자 취섬은 자신이 떠나려고 마음먹었다면 그 이전에도 얼마든지 떠날 수 있었다고 하는 대답 가운데 나온 말이다. 심약과 취섬 두 사람은 고을 원과 기생이라는 상호 관계를 전제로 부임지에서만큼은 배타적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흔히 수령에 대한 기생의 전방(專房)은 흔히 물질적 이해관계에 근거한 것이 보편적인 것이었으므로 취섬이 심약에게 보여준 태도는 당대의 통념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상대 남자의 상황이 악화되어도 그 관계가 유지된 것을 보면 심약에 대한 취섬의 태도가 단지 물질적 거래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추향>은 영조 때 이조참판 심약이 죄를 짓고 사사되었다는 기술에서부터 시작한다. 심육은 심약의 형인데, 밀양부사였던 심육은 늙었지만 기생 추향에게 건줄을 받들게 하며 매우 사랑하여 잠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어느 날 동생의 죄를 알게 된 심육이 자발적으로 상경하는데 이때 추향은 조금도 슬퍼하지 않고 전송도 않은 채 단지 수백 냥의 돈을 요구할 뿐이었다. 이렇듯 시침 폐고 있었던 추향은 그 돈을 가지고 이자를 불러 관복으로 유배가 있던 심육을 찾아가서는 ‘천명을 순순히 받아들여 참혹한 재앙을 피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며 ‘일찍 죽는 약, 즉 좋은 술을 가져왔다’, ‘음주침색(飲酒沈色)’의 방식으로 죽는 게 낫다고 권한다. 심육은 쓸쓸히 응낙하고 따라 한 달이 못 되어 죽었고 추향은 손수 염하고 관곽을 준비하였다. 관이 서울로 떠나려 할 때 손수 제전을 차려 관 앞에서 곡을 한 후 그 날 밤 추향은 스스로 목을 찢러 죽었다.

앞의 두 작품과는 달리 <추향>에서는 ‘종애심독, 미상잠리좌우(鐘愛甚篤, 未嘗暫離左右)’, 즉 ‘鐘愛’와 같은 직접적 표현이 사용된다. 두 사람의 관계가 서술자에 의해 ‘사랑[愛]’으로 규정된 것이다. 그러나 심육이 떠날 때 추향은 짐짓 예사 기생이 취할 만한 태도를 취하여 반전을 보인다. 재물 욕심만 보이는 추향의 모습에 심육은 ‘사랑했던 정[愛情]’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언짢아졌다. 그런데 이 반전은 금방 뒤집힌다. 그가 관복으로 유배간 후 한 소년이 찾아와 인사를 하는데 추향이었던 것이다. 추향은 그때 앞일이 힘들게 될 것을 예상하고 의리를 지켜 혼자 살면서 돈을 모아 온 것이다. 조정의 소식까지 다 탐지한 그녀는 상자 몇 개에 미주(美酒)와 어포, 수의 한 벌, 금은 몇 덩이 등을 싸가지고 와서 사약을 받느니 차라리 자신과 즐기다 죽는 게 낫다고 권한 것이다. 쓸쓸히 응낙한 심육은 술과 추향과의 동침으로 한 달만에 죽고 그 후 그녀도 심육의 관 앞에서 목을 찢러 죽었다. 건줄을 받들던 남자의 죽음을 따라 자결한 추향의 자살은 마치 열녀의 자살을 연상시킨다.

3. 평결 및 실화(實話) 여부

1) 평결

<협창>의 평결 부분은 다음과 같다.

아, 아무개는 진실로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 만하며 또 치마 입고 비녀 꽂은 이 중 관부(灌夫)이다. 이 어찌 세속의 화장한 무리 중 오로지 돈만 좇는 자들과 비교하라? 아! 어떻게 그 남은 화장기와 향을 얻어 세상의 그렇고 그런 사귀를 좇는 자들을 감복시키겠는가? 아!⁸⁾

8) “噫! 若而人者, 眞可謂自好, 而亦裙叉中灌夫也. 是豈世俗粉頭之惟錢貨是逐者比也? 嗟乎! 安得其殘粉剩香, 爲世之市交者服哉? 噫!”

이 작품에서 이옥은 무명(無名)의 기생을 아예 협창(俠娼)이라고 부르고 있다. 협기 있는 창기의 기이한 이야기[俠娼奇聞]라는 제목은 벌써 그녀가 의기가 있고 개인 윤리를 지닌 인물형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⁹⁾ 평결 부분에서는 이옥은 그녀를 ‘자호(自好)’ 즉 스스로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여자 중 ‘관부(灌夫)¹⁰⁾’라고 하여 모두가 몸을 사리는 상황에서 위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발언도 할 수 있는 인물로 분류한다. 그녀는 기생이지만 돈만 바라고 남자를 대하는 이들과는 차별화된다는 평가가 이어지는데, 이는 본문에서 그녀에게 ‘고의(高義)’가 있고 염량세태를 좇는 이가 아님¹¹⁾을 알게 되었다고 한 언급과도 상통한다. 그런데 다음 문장을 보면 이옥의 관심의 향방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있다. 결국 그는 ‘세상의 그렇고 그런 사귀[市交]’이라는 속된 관계를 문제 삼는다. 이옥이 그녀를 입전한 까닭은 그녀에게서 돈만 이는 기생들의 시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었던 당당한 기상이 짙어 나왔기 때문이다. 도입부를 보면 그녀에게 문전박대를 당했던 사람들이 그녀에게도 지키는 바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¹²⁾는 간단한 언

9) 협(俠)에 대한 정의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사마천이 『사기』<유협열전>에서 서술한 것이다. 그는 유협(游俠)에 대해 정의하기를, ‘비록 그 행위가 정의에 합치되지는 않지만 그 말은 반드시 신의가 있고 또 행동은 과감하여 이미 허락한 일에는 꼭 성(誠)을 다한다.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남의 액곤에 달려가 생사존망의 사이를 넘나들면서도 그 재능을 뽑내지 않으며 그 덕을 자랑하는 것을 부끄러이 여기니, 죽히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하였다. 박희병, 조선후기 민간의 유협 숭상과 유협전의 성립, 『한국고전인물전연구』, 한길사, 1992, 277.

10) 관부(灌夫)는 의협심이 있고 약속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으며, 두영이 세력을 잃자 모두 떠나갔는데 끝까지 그 곁에 남아 의리를 지킨 인물이다. 그는 황제의 외숙인 무안후의 혼례식에서 시비를 가리다가 무안후의 눈 밖에 나 죽음을 당하였다. 『사기(史記)』, 열전, <魏其武安侯列傳>.

11) “知娼之有高義, 而非趨炎者也”

12) “當是時, 客之得閉門羹於娼者, 皆嘗之爲熱心腸, 不知其有守也”

급이 있는데 이옥은 본문과 평결을 통해 그 ‘지키는 바’의 내용을 구체화 시켜 놓은 셈이다.

<취섬>은 평결 부분이 독립되어 서술되지 않았다. 한국한중양연구원에 소장된 『청성잡기』는 원래 소제목이 없이 각각의 이야기들을 줄을 바꿔 기록하는 것으로만 구별해 놓았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 역시 제목 없이 ‘취섬(翠蟾)’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바로 이어서 경성(鏡城) 출신 기생 복덕(福德)의 의리에 대해 기술한 일화가 연결되어 있다. 이 두 이야기를 연결해 보면, <취섬>은 평결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서술자가 무엇을 높이 평가해서 기록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있다. 취섬의 이야기에서도 강조되는 것은 ‘의(義)’이다. 취섬은 유명한 기생이었지만 물질로 관계를 맺지 않았다. 또 모시던 고을 원이 몰락하게 되자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들여 북쪽 변방의 유배지에서 그를 봉양하였고, 남해로 옮겼을 때에는 기꺼이 힘든 노동도 마지않았다. 이는 흔히 기대되던 당시 기생들의 사قم, 기생들의 세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런 그녀의 속내는 마침 등장하는 서울 상인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되는데 여기에서 서울 상인은 마치 그녀의 색깔을 알려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기능을 하는 인물이다. 자기를 따르면 호의호식할 것이라는 상인의 말에 그녀는 탄식을 하면서 차마 배반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자 그 상인은 몇 필의 베를 주고는 떠났는데, 이 부분에서 서술자는 ‘그 역시 의협¹³⁾’이었다고 규정한다. 그 ‘역시’ 의협이었다는 말은 그녀 역시 의협으로 간주되었을 가능성을 내포하는 표현이다. <취섬>은 기생 취섬을 의협(義俠)이거나 협(俠)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의기(義氣) 있는 기생으로 평가하여 기록한 것이다.¹⁴⁾

13) “賈亦義俠也”

14) 취섬이 서울 상인에게 대답하는 내용 중 ‘고종인어애(顧從人於陋)’라는 표현이 나온다. 박지원도 ‘고(顧)’에 대해 언급한 일이 있는데, 그는 ‘힘으로 남을 구하는 것을 협

<추향>의 평결부분은 다음과 같다.

아, 슬프다. 추향은 심육으로 하여금 형륙을 면하게 하여 자손을 보전하게 하였으며 또 능히 그를 좇아 순절하였으니 어찌 우뚝하지 않겠는가? 관북 사람들은 그 지감과 열행을 매우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으며 지금까지도 기린다. 시를 지어 증명한 것이 있다.

머리 허연 조정의 신하가 밀양 고을의 원이 되어 /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여러 해 동안 추향을 사랑하였네 / 차마 늙은이가 참혹한 화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없어 / 원하는 바는 공의 넋을 따라 관 앞에서 죽는 것¹⁵⁾

<추향>의 평결 내용을 보면 음주침색(飲酒沈色)하여 죽음에 이르러 한 추향의 방법이 칭송을 받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김육이 사형을 당하기 전에 죽게 하여 결국 자손을 보전케 하였다는 점이다. 또 남자의 죽음에 자신의 죽음으로 응했으니 우뚝하다고 기려준다. 이 작품에는 심육을 만나기 전 추향이 남자들과 관계를 맺을 때 물질이 차지했던 비중을 가늠케 하는 단서가 서술되어 있지 않다. 대신 그가 유배 간 후 의리를 지켜 혼자 살았다[守義獨居]는 표현이 있어 그녀가 심육과의 관계에서는 의(義)를 중시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평결에서 강조되는 가치는 자손보전, 지감, 열행 등으로 모두 조선시대에 공고했던 유교적 이념에 더 가까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세 작품 중 『양은천미』의 편찬 시기가 가장 후대의 것이지만 『양은천미』에 수록된 <추향>에서 가장 보수적 가치가 기

(俠)이라 하고, 재물로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고(顧)라고 한다. 고일 경우 명사(名士)가 되고 협일 경우 전(傳)으로 남는다고 하면서 ‘의(義)’는 협과 고를 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영호, 『조선의 협객 백동수』, 푸른 역사, 2002, 64.

15) “嗚呼，悲夫！蓋秋香使銷免得刑戮，保全子孫，又能從以殉節，豈不卓哉？關北人士，莫不盛稱其知鑑烈行，至今嘖嘖焉。有詩爲証。皓首朝紳守密陽，經年魚水愛秋香，忍見老翁遭慘禍，願隨公魄柩前亡。”

려진다.

2) 실화(實話) 여부

<협창>에서는 기생도, 양반 남성도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을해옥사¹⁶⁾라는 사건명만은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다. 높은 벼슬을 하고 서울에서 호화롭게 살았던 남자 주인공은 형의 죄에 연루되어 제주도의 관비가 되어 유배를 가게 된 인물이다. <취섭>에는 기생과 양반 남성의 이름이 등장한다. 함양 근처 원으로 와 있던 심약이라는 인물이 그의 형 심약의 죄에 걸려 북쪽 변방으로, 남해로 이배되면서 처지가 불우해졌다는 내용이다. <추향> 역시 기생과 양반 남성의 이름이 등장하며, 밀양 부사 심육이 동생 심약의 역모죄에 연루되어 관복으로 유배되었고 사사될 처지에 처해 있었다.

<협창>은 실명 정보는 없으나 사건명은 제시하였고 다른 두 작품은 남녀 등장인물의 이름은 있으나 사건명은 언급되지 않았다. 남녀 등장인물의 이름의 경우, <취섭>에는 심약(沈鑰), 심악(沈錐)이 등장하는데 심약은 정확한 이름이지만, 심악은 부정확한 이름이다. 을해옥사 때 심씨 가운데 걸린 이로는 심악(沈錐)이 있다. 심악은 심수현(沈壽賢)의 아들이다. 심수현은 영조 때 영의정까지 지낸 인물이며 장자 심육(沈鑄)¹⁷⁾을 비

16) 을해옥사(乙亥獄事)는 을해년인 1755년에 일어난 사건이다. 윤지는 숙종 때 과거에 급제했으나 1722년 김일경의 옥사에 연루되어 나주에 귀양을 가게 된다. 그런데 오랜 귀양 생활 끝에 그는 아들 광철과 동지를 규합하여 1755년에 나라를 비방하는 글을 나주 객사에 붙였다. 그런데 이것이 윤지의 소행임이 밝혀져 거사를 일으키기 전에 잡혀 서울로 압송되었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백 명의 소론측 인사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17) 심수현의 가계에 대한 정보는 한국고전번역원 사이트(<http://www.itkc.or.kr/itkc/Index.jsp>)에서 제공한 『한국문집총간』 207, 208권 『저촌선생유고』 해제 중 가계도 부분을 참고한 것이다. 『저촌선생유고』는 심육의 문집명이다.

못하여 5명의 아들을 두었다. 이 집안에서는 숙부 심유현(沈維賢)이 이인좌의 난(1728)에 연루되어 죽었으며, 심약은 심유현에게 양자 갔다가 파악한 동생 심필(沈鎰)의 과거 합격 취소는 억울하다며 상소한 일이 있다. 심약은 1743년 딸이 세자빈 재간택에 들기도 하였으며 정언, 사간, 승지, 공조참판, 동래부사, 강화유수 등을 지냈고 1751년에는 형조참판을 제수 받았는데, 1755년에 친국을 당하고 대역죄가 적용되었다.¹⁸⁾ 심약의 남동생으로는 심륜(沈鎰), 심필(沈鎰), 심발(沈鉞)이 있으므로 <취섬>의 심약(沈鎰)은 사실과 부합하는 이름이 아니다. 다만 현재 남아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청성잡기』 필사본을 보면 필사 상태가 매우 정교한 이본은 아니어서 <취섬>의 심약(沈鎰)은 심륜(沈鎰)의 오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추향>은 심육(沈鑄:1685-1753), 심악(沈錐)이라고 명명하면서 을해옥사와 관련한 이름들이 정확하게 등장한다. 심육이 심악의 형인 것은 맞다. 심수현은 첫째부인 전의 이씨에게서 심육을 얻고 그 후 둘째부인 광주 안씨에게서 세 명의 아들을 얻었다. 그러나 심육은 을해옥사가 나기 전인 1755년 이전에 죽으며 여러 번 벼슬을 제수 받기는 하나 실제로는 사양하고 벼슬에 나가지 않은 채로 지낸 인물이다. 그런데 작품의 사건이 심씨 집안과 연루된 사건임은 분명해 보이므로 사건의 정황상 남자 주인공이 심육이 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심육은 잘못된 정보에 입각한 명명일 확률이 높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협창>은 남녀 주인공의 이름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가장 정확한 기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취섬>과 <추향>이 심약을 거론하고 있고, <협창>이 을해옥사를 거론한

18) 심약의 벼슬 제수 및 논핵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 「영조실록」의 심약 관련 기사 참고.

것을 보면 이는 결국 을해옥사 때 심악의 사사가 배경이 된 사건임에는 분명하다. <협창>과 <취섬>은 ‘형의 죄’에 연루되었다고 했고 <추향>은 ‘동생의 죄’에 연루되었다고 했으나, 결정적으로 심육의 생몰연대가 1685년에 태어나서 1753년에 죽었기에 심악의 죄에 연루되는 이 작품의 남자 주인공이 형 심육이 될 수는 없다. 을해옥사 후 심악 형제의 일이라면 남자 주인공은 심악의 동생이 되어야 가능하다. 물론 이 작품의 남자 주인공이 바로 심악의 동생이 겪은 실화이거나 혹은 세 명의 동생 중 심륜의 실화를 옮겨온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이 작품은 심악의 사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최소한 심악의 동생 중 한 명이 남자 주인공으로 설정된 셈이다. 다른 두 작품이 실명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이야기의 저간에는 을해옥사를 배경으로 한 실제 사연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세 작품의 비교 대조를 통해 이 작품의 소재 원천이 실화일 가능성을 살펴면서 주목할 만한 지점은 이옥의 경우 굳이 남녀 인물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두 작품은 실명을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대로 필사했다는 사실은 필사자들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협창>과 비교해 볼 때, <취섬>과 <추향>은 상대적으로 전해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적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세 작품 중 <협창>이 구전과는 가장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두 작품에 비해 작가의 고유한 창작의 지점, 서술의 전략 등이 내포되어 있는 작품이 <협창기문>임을 의미한다.

Ⅲ. <협창기문>에 내포된 죽음의 양상

1. 서사 단락 및 표현 방식

1) 서사 단락

<협창기문>의 서사 단락은 네 부분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우선 도입부에서는 여성 주인공인 창기가 서울에서 얼마나 유명하고 도도한 기생이 었는가에 대한 정보와 그 기생에 대한 평판을 서술하고 있다. 도입부에서 강조되는 것은 당대 최고였다는 그 기생의 미모와 기예 그리고 남성의 돈과 권력, 외모, 풍류 등의 조건을 보고 손님들 가려 받는 그녀의 태도이다. 이 부분을 보면 그녀는 자신의 성적 매력과 교양을 자본으로 남성들과 거래하면서 돈을 버는 기생의 직업에 철저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한 번이라도 출입한 남성들을 보면 그녀가 내세운 기준 즉 그 기방의 문턱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 결과, 도입부에서는 기예를 포함한 자신의 성적 매력을 권력화하여 남성들에게 차별적으로 행사하는 그녀의 야박함과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는 그녀의 비인간적 면모가 두드러진다.

두 번째 단락은 그런 그녀가 자신의 손님 중 제주도 노비가 된 사람을 위해 다른 손님들에게 여비를 부탁하는 부탁과 설득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철저하게 이익을 좇는 것처럼 보였던 그 기생이 완벽하게 몰락한 남성을 위해 길 떠난 채비를 차리는 것도 뜻밖이지만 그 비용을 자기 기방의 다른 손님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의외이다. 그녀의 논리는 ‘십 년 동안 친밀하게 지냈던 자신의 손님은 백 명 정도이며 모두 잘 살던 사람들인데, 자신이 기뻐했던 사람이 굶주려 죽는다면 이는 자신의 수치¹⁹⁾’이기 때문

19) “我之設此會，十年，所親密，亦近百人。竊計之，皆肉食衣衾，而度世，未嘗有窮乏。今某，且餓死於濟。奴之歡而以餓死，是奴之恥也。吾將從之。”

에 따라가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부탁을 하며 ‘속히 행장을 꾸려 달라고 하는데, 이 부탁을 들은 다른 남성들은 자신도 그 기방의 손님들이었기에 같은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은연 중 가졌던 것인지 그녀의 부탁을 속히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기생의 직업에 걸맞은 설득의 방식을 선택하였다.

세 번째 단락은 그녀가 넉넉한 재물을 가지고 제주도로 떠나 그 남자와 함께 죽기까지의 내용이다. 그녀는 지극히 화려한 것들로 그 남자를 받들며 그를 설득하였다. 문면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남자는 다시 복귀할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녀의 설득의 내용은 ‘그대는 다시 북쪽으로 갈 수 없는 게 분명하다’, ‘힘들게 사는 것이 즐기는 가운데 죽는 것만 같지 못하다’면서 즐기다가 죽자는 것이었다. 여기에서의 북쪽은 서울을 가리킨다. 그리고는 날마다 독주를 갖춰 술을 따라 권하여 취하게 만들고 취하면 잠자리에 들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독주와 섹스의 반복으로 그는 과연 병이 들어 죽었고, 그녀는 관곽과 옷, 이불 등을 매우 아름다운 물건으로 장만하여 그를 묻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장례 준비도 해 놓고 십여 폭의 편지와 재물을 이웃에게 부탁하여 그 편지가 서울의 옛 친구들에게 전달되게 해 놓은 후 폭음을 하고 통곡한 후 그녀 역시 죽는다. 그녀의 편지는 과거의 자신을 아는, 자신에 대한 평판을 아는 이들로 하여금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게 하고, 그녀의 의를 깨닫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 그들이 돈을 걸어 그녀의 주검을 맞아온 후 장례를 지내주었다는 내용으로 일단락되는 세 번째 부분은 짧은 내용 안에 격정적인 감정의 기복들을 담아내고 있다. 제주도에서의 기녀와 그 남자의 동거는 곡진하고도 화려하다. 넉넉한 재물로 행해지는 극진한 봉양, 화주(火酒)와 동침의 나날, 술과 섹스를 이용한 자살, 정성을 다한 화려한 장례 치례 등은 화려하고도 호사스러운 이미지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돈도, 육체도

실컷 당진하는 과정, 욕망과 쾌락의 끝에 기녀가 선택한 죽음의 방식 역시 폭음사였다. 매우 격정적이고 충동적인 선택이다.

마지막 평결 부분은 앞서도 살핀 바와 같이 돈만 좇는 시정세대, 염량세대를 따르는 시교(市交)에 대한 경계로 되어 있다. 이옥에게 중요했던 것은 기생의 사랑도, 허무감도, 죽음도 아니었다. 오로지 협의 가치, 사권의 문제, 돈을 좇는 세대의 문제였다. 이제 기녀는 첫째 단락에서의 부정적인 평판과는 정반대의 인물임이 드러나 있다. 평결에서는 시정세대에 대한 이옥의 냉정한 시선과 그가 동경하는 가치를 엿볼 수 있다. 이옥은 그녀를 의협심 있는 기녀로 명명하였다. 협에 대한 이옥의 관심은 18세기에 새롭게 부상하는 가치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그 기녀에게서 협의 면모를 평가한 것도 타당한 시선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단지 자신이 섬기는 윗사람을 위해 죽은 ‘관부’와는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다. 이옥의 평결은 그 부분까지는 언급하지 않았기에 그녀의 죽음은 여전히 사마천이 『사기』에서 포상한 협(俠)으로 범주화되었고, 포(褒)의 방향이든 폄(貶)의 방향이든 간에 그녀가 선택한 죽음에서 감지되는 탈중세적인 분위기는 언급되지 않았다.

2) 표현 방식

이옥은 이 작품에서 남녀 주인공의 이름을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는 대신 배경이 되는 사건은 정확하게 제시하였다. 이옥이 실제로 그들의 이름을 몰랐거나 혹은 알고도 일부러 안 적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이들의 선택은 당대의 정서에 비추어 매우 과격적인 이야기이기에 오히려 무명씨로 제시한 것이 정황상 더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효과를 얻기도 한다. 작품에서 그 남자는 ‘창지환일인(娼之歡一人)’이나 ‘노지환(奴之歡)’과 같이 그녀와의 관계에서만 불려진다. 제주도까지 따라가서 마지막을 함께

할 정도쯤 되면 창기에게 그 남자는 분명 손님 이상의 의미였을 것이며, 기방에서는 내색을 못 했을지라도 마음에 품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 정도면 정인(情人)이나 회인(懷人)과 같은 단어를 쓸 수도 있을 텐데, 이옥은 창기의 입을 빌어 ‘불과위심상일석우(不過爲尋常一夕友)’라고 말하게 하면서 ‘애(愛)’ 대신 ‘환(歡)’이라는 표현을 선택하였다. 그런데 ‘환(歡)’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뜻과 더불어 교정(交情), 친분 혹은 사랑한다는 뜻까지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환’은 이렇듯 창기와 그 남자와의 일정한 거리를 만들어 보이기도 하고 동시에 감정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음을 다 포괄하여, 자신들의 욕망의 대상이었던 기생의 그녀의 정인을 돕는데 다른 남성들도 선뜻 동참하는 정황을 연출해 낸다.

이 작품은 정황 설명을 길게 하지 않는다. 글자는 몇 개 안 되는데 벌써 많은 행동들이 서술되는 것이다. 그나마 길게 서술되는 부분은 기생의 발화 내용이다. 하루아침에 삶이 바뀌는 극적인 상황이니 심리나 정황에 대한 설명이나 묘사가 있을 법한데 그런 서술은 다 배제되었다. 대신 기생이 선택하는 행위들만 따라가는 서술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은 셋째 단락에서 기생이 선택한 죽음의 방법이다. 그 부분 인용은 다음과 같은데, 그녀가 남자의 희망이 헛되다는 말을 한 후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그리고 날마다 독주를 갖추어 따라 취하게 하였고 취하면 이끌어 함께 잠 자리에 들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았으니 얼마 안 있어 과연 병들어 죽었다.²⁰⁾

비교를 위해 <추향>에서도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용해 본다.

20) “乃日具火酒，灌，醉之。醉輒引與寢，不以晝宵間。居無幾，果病而死”

추향이 행장을 푸니 좋은 술 몇 말이 든 상자와 어포와 육포가 가득한 상자, 수의 한 벌이 든 상자, 금과 은 몇 덩이가 봉해져 있던 상자를 앞에 늘어놓았다. 심육이 말하였다. “이것이 어찌하여 약이란 말이나?” 추향이 말하였다. “공께서는 지금 늙고 쇠약하셨으나 아직 술과 계집을 좋아하십니다. 이 맛난 술을 드시면서 첩과 같이 지내시면 쇠약한 기질이 주색에 빠져 몇 달이 안 되어 반드시 절로 운명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 바 명을 재촉하는 좋은 약입니다. 공께서는 애석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심육은 쓸쓸히 응낙하고 이후로 매일 술과 색에 빠지니 한 달이 못 되어 과연 적소에서 죽었다.²¹⁾

두 작품을 비교해 보면 이옥의 표현이 얼마나 간결한가를 알 수 있다. 막상 죽음에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정황을 설명하는 대화나 열거 혹은 묘사적 서술은 생략된 채 한 행위에 한 글자 정도만 사용하면서 행동으로만 연결된다. 위 인용문 ‘乃日具火酒, 灌, 醉之. 醉輒引與寢, 不以晝宵間. 居無幾, 果病而死’는 기생이 제시한 ‘사어락(死於樂)’에 대한 내용이었다. 한 행위에 한 글자 정도만 배치한 <협창>의 인용문은 속도감이 있고 간결하며 다른 서술이 전혀 없기에 오히려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옥은 서술은 간결하게 하면서 평범하지 않은 어휘를 선택하였다. 전술한 ‘奴之歡’도 그렇거니와 술의 경우도 <추향>에서는 ‘미주(美酒)’인데 비해 <협창>에서는 ‘화주(火酒)’이다. 화주는 의미상으로는 독주를 가리키나 ‘火’라는 글자를 선택함으로써 붉고 강렬한 이미지를 아우르는 효과가 있다. 또한 불의 이미지를 지닌 글자 선택에서 오는 화려하고 격렬한 미감은 술

21) “秋香解裝, 一箱儲美酒數斗, 一箱盛魚肉胙脯, 一箱藏壽衣一襲, 一箱封金銀數塊, 開列於前. 鎬曰, “此何藥也?” 秋香曰, “公今老衰, 而尙能愛酒好色. 飲此旨酒, 與妾同處, 以衰朽之質, 入酒色之鄉, 不出數月, 必將自殞, 此所謂催命之良藥也. 公可勿惜.” 鎬愀然應諾, 自是以後, 每日飲酒沈色, 不一月, 果卒於謫所.” <추향>, 139.

과 섹스를 탐닉하다 죽어가겠다는 퇴폐적이며 쾌락적인 자살 방법을 선택한 이들의 극적인 최후와도 어울린다.

2. '창기'의 재현 양상

고전소설 <이춘풍전>의 추월처럼 철저하게 이재에 밝은 기생이거나 홍직필(洪直筆: 1776-1852)의 문집에 수록된 <기경춘전(妓瓊春傳)>의 경춘처럼 자신이 사랑하던 남자의 붓을 품에 넣고 열여섯 나이에 강물에 투신한 열녀 기생 등은 조선시대에 기생을 재현해 내던 전형적 형상들이다. 당대 기생에 대한 이 같은 재현 방식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옥이 그려 낸 기생 형상은 특별하다.

1) 서사의 주도자

<협창>의 기생은 서사를 주도해 가는 인물이다. 그녀는 발화 및 행위의 주도자이며, 그녀의 대화에서는 기생의 의지와 설득의 전략이 드러난다. 그녀는 말하고 행동한다. 이에 비해 남성 인물은 발화하지 않는다. 말 없이 잠잠하며 의지나 주장이 드러나 있는 곳이 없다. 다만 그가 서울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기대했었을 가능성만은 엿보인다. 그러나 이것도 '서울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제주도에서 노비 신세로 사느니 즐기는 가운데 죽는 게 낫다'는 기생의 발화로 말미암아 행간을 읽어서 짐작할 뿐이다. 그가 한 말이나 그가 주도한 행동에 관해서는 서술을 통한 간접 제시조차 없다. 사건의 정황이 <협창>과 좀 더 가까운 <추향>의 경우는 남성 인물도 함께 발화하고 행동한다. 그러나 <협창>의 경우는 모두 기생의 예상과 기생의 발화이며, 남성 인물은 기생의 말을 듣고 그녀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를 뿐이다. 그 역시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도 따랐을 것이니 그녀의 자살 계획에 동의한 것은 짐작 가능하다.

기생이 등장하는 다른 작품에서도 영리한 기생의 주도면밀한 계획이나 실천이 강조되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이 작품처럼 기생만 두드러지고, 함께 죽을 결심을 할 정도로 기생에게 중요한 사람이었던 남성 인물이 이렇게 철저하게 침묵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를 받들던[供之] 기생이 ‘즐기다 죽자’고 한 권유에 그가 어떻게 응했는지 여부도 생략된 채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기생이) 날마다 화주를 갖춰[日具火酒] (그에게) 술을 따라[灌] 취하게 하고[醉之], 취하면 문득[醉輒] 끌어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引與寢]’이었다. 행위의 주체가 기생임을 알 수 있다. 작품에 나타난 그의 행동은 귀양 간 것, 그녀가 따라 주는 독주를 마시고 잠자리에 응한 것 그리고 죽은 것이 전부이다. 기생은 발화와 행동을 주도함으로써 이 작품의 사건을 추동해 가는 역할을 한다.

2) 동반 자살을 선택하는 기생

이 작품에 나타난 죽음은 두 인물의 죽음이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동반 자살에 해당한다. 그것도 밤낮없이 독주와 섹스에 탐닉하는 나날을 보내다가 쇠진하여 죽는 방법이었다. 18세기 조선이라 해도 여전히 유교적인 규범이 주도하는 사회였는데 기생은 왜 하필 이런 방식의 자살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왜 자기 혼자만 죽거나 그 남자만 죽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죽음으로 몰고 가야 했을까? 게다가 서울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기생이 왜 죽음을 준비하려 했을까? 그것도 쾌락적 탕진사를 말이다. 그들의 죽음이 충격적인 방식을 취하였기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어진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중 관심이 가는 질문은 그 둘의 죽음이 정사(情死)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죽음이 정사를

연상시키는 면이 있는데 정사는 근대에 이르러야 나타나는 죽음의 양상인 것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사란 사랑하는 남녀가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함께 자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비교의 대상이었던 다른 두 작품에서는 죽음의 양상이 조금 다르게 그려진다. 일단 <취섬>에서는 유배 상황만 제시될 뿐 심약도, 취섬도 함께 죽음을 거론하지는 않는다. <추향>의 경우는 유배지에서 음주침색하여 함께 죽음에 이르는 것은 동일한데 남자만 그렇게 죽고 추향은 목을 찢러 죽는 방식을 선택한다. 그 둘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죽음으로써 죽음으로 인한 공유, 합일의 느낌은 없다. 그러므로 <취섬>과 <추향>의 죽음은 정사를 연상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 밖의 다른 작품에 나타난 기생들도 사랑에 좌절했기 때문에 상대 남성과 함께 동반 자살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²²⁾ 그렇다면 <협창>은 사랑에 좌절한 두 남녀의 동반 자살에 해당할까?

조선시대 전기소설을 보면 사랑을 이루지 못한 남녀가 시름시름 앓다 결국 둘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기도 한다. 그런데 이 경우 궁극적으로 남녀가 다 죽기는 하지만 이 역시 정사와는 거리가 있다. 왜냐하면 정사는 적극적인 자살의 형식인데 그리움에 시름시름 앓다 죽는 것은 상사병으로 인한 죽음으로, 자살의 형태는 아니기 때문이다. 전기소설은 아니지만 자신을 사랑하던 남자가 죽자 따라 죽은 여성에 관한 글들도 있다. 조수삼(趙秀三: 1762-1849)의 『추재기이(秋齋紀異)』에 수록된 금성월(錦城月)의 이야기나 유재건(劉在建: 1793-1880)의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에 수록된 「범곡기문(凡谷記聞)」의 면성월(綿城月) 이야기가 그것이다. 금성월은 기생이라는 언급은 없으나 ‘재주와 미모가 매우 뛰어나 당대에 소문이 났다’는 표현으로 미루어 기생일 가능성이 높아 보

22) 앞에서 예로 든 경춘의 경우처럼 따로 혼자 자살하는 경우들은 더러 보인다.

인다. 면성월은 무안 기생으로 나온다. 그녀들은 어떤 남자의 첩이 되어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남자가 중죄를 지어 사형을 당하자 금성월은 가슴에 칼을 꽂아 죽었고 면성월은 스스로 목을 베어 죽었다. 두 작품 모두 열녀전의 형식은 아니나 죽은 남편을 따라 죽었다는 내용을 보면 둘 다 열녀에 가까운 형상임을 알 수 있다. 물론 그녀들의 경우, 더 이상 사랑할 대상이 없는 현실에 좌절하여 죽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엄밀한 의미에서의 정사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상대 남성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좌절한 사랑으로 인한 동반자살에 그가 동의한 형태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기생의 말에 따라 남자가 동의하여 죽었고 기생도 곧이어 폭음사한 <협창>의 죽음은 분명 다른 바가 있다. 두 남녀가 세상과 단절된 채 함께 성과 술을 즐기다 죽음에 이른 <협창>의 경우는 정사처럼 보일 여지가 다분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는 바로 남자의 태도이다. 진정한 정사가 되려면 두 사람이 자신들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알고 합의하에 함께 자살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그녀 스스로 그를 가리켜 하룻밤 심상한 벗에 불과하다고도 했지만 <협창>의 기생은 그 남자를 특별히 마음에 품고 연모했을 확률이 높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주 관노로 몰락한 그를 제주도까지 따라가서 호사스럽고 극진하게 모신 후에 함께 죽을 계획을 세울 까닭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과연 그 양반 남성도 그 기생을 '사랑'했을까? 상대 남성이 만약 심악의 동생이거나 혹은 그 수준에 버금가는 인물이라면 그는 어느 정도의 벼슬을 한 인물일 것이며 당연히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을 것이다. 양반 남성이 기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애정을 쏟는 경우는 주로 지방관이 되어 타지에 부임하고 있을 동안의 일이다. 부임지에서는 날마다 수청을 든 기생이라 할지라도 첩으로 들이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²³⁾ <협창>처럼 서울의 유명한 기

방을 드나드는 벼슬아치가 그 기생을 진정 사랑해서 몇 년 동안 사랑하거나 혹은 첩으로 들일 작정을 할 확률은 더 낮을 것임에 분명하다. 제주도에서 그 남자의 태도는 어떠했을까도 궁금하지만 작품에는 이와 관련한 언급이 없다. 제주도에서 그는 자신에게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포자기의 상태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상태에서 그녀와 함께 지냈다면 그가 그녀를 사랑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둘의 동반 자살 역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이 둘의 동반 자살은 사전적 의미에서의 정사라고 단정 짓기에는 모호한 지점이 있다. 그러나 이옥은 그 남성을 침묵시켰기에 또한 여전히 다른 가능성들은 잠재태의 상태로 남겨져 있다. <협창>의 동반자살이 정사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남성 인물에게서 주체성과 의지를 찾아볼 수 없도록 식물화한 이옥의 표현 방식에서 기인한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중국 명청 소품문의 영향이다. 이옥은 중국의 소품문들을 많이 접하였으며 그 중에는 여회(余懷: 1616-1696)의 『판교잡기(板橋雜記)』²⁴⁾나 풍몽룡(馮夢龍: 1574-1646)이 편찬한 『정사유략(情史類略)』과 같은 중국 기생들의 이야기가 다수 들어 있었다.²⁵⁾ 또 당시 조선에서는 장조(張潮: 1650-1707?)의 『우초신지(虞初新志)』도 많이 읽

23) <소수록>에는 기생들의 쓸쓸하고도 절박한 마음의 풍경이 드러나는 기생 관련 자료들이 들어 있는데, 몇몇 작품에서는 부임지에서 양반 남성을 모시던 기생이 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막상 첩이 되기는 매우 어려웠던 정황이 잘 드러난다. 정병설, 『나는 기생이다』, 문학동네, 2007, 82-103, 234-265.

24) 안대회는 이옥의 <유리원청락기(游梨院聽樂記)>를 인용하면서, 엄정적인 문학에 취미가 남다른 이옥이 『판교잡기』에 특별한 관심을 둔 것은 당연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안대회, 「평양기생의 인생을 묘사한 소품서 녹파잡기 연구」, 『한문학보』14집, 우리한문학회, 2006, 304.

25) 이옥의 명청 소품 독서에 대하여는 김영진, 이옥 연구(1)-가계와 교유, 명·청 소품 열독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18, 한국한문교육학회, 2002, 357-359.

었다고 하며, 조선에 들어온 『우초신지』판본 중에는 『판교잡기』가 함께 수록되어 있는 이본들도 있는데,²⁶⁾ 『우초신지』 역시 중국 강남 기녀들의 이야기이다. 중국의 소품문에는 조선의 이야기보다 소재나 묘사가 자세하고 자극적이거나 감정의 진폭이 더 큰 작품들이 있으며 이옥이 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슷한 소재를 형상화한 여타의 조선 작품들이 기녀들의 형상을 열녀로 범주화하고 있을 때, <협창>은 결코 열(烈)이나 절(節) 같은 낱은 단어로 그 인물을 포착해 내지 않았으며, 비록 협의의 정사(情死)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동반 자살의 과정 역시 인상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3) 협창(俠娼)? 관부(灌夫)?

이옥은 그 기생을 높은 의가 있는, 의협심이 있는 인물이라고 평했으며, ‘여자 관부’라고 불러준다. 물론 그 기생은 세상의 평판과는 달리 본래부터 자기만의 가치, 지키는 것[守]이 있던 인물이었다. 이것을 개인 윤리로 해석한다면 이 역시 협(俠)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그런데 ‘협창’ 혹은 윗사람에 대한 전폭적 추종을 실천한 ‘관부’와 같은 단어만으로 이 기생의 선택이 다 설명되는 것일까?

그녀는 ‘노지환’, ‘불과위심상일석우’에게 굳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투자했다. 그것도 자기 기방에 출입하던 손님들에게 각출까지 해 가면서 말이다. 그녀가 제주도로 떠난 것은 결국 그와 함께 죽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녀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 같은 자살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절의를 지키느니 오히려 <포의교집> 마지막에 등장하는 기생 화옥²⁷⁾처럼 기생의 직역에 충실하면서 한평생 호화롭게 즐기면서 사는

26) 안대회(편), 김영진, <우초신지>의 판본과 조선후기 문인들의 명칭소품 열독, 『조선후기 소품문의 실제』, 태학사, 2003, 218.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혹은 김진형에게 버림 받은 <군산월애원가>의 군산월²⁸⁾과 같은 경우라도 첩으로 데려가겠노라는 약속을 저버린 데 대한 슬픔과 원한에 찬 글을 남길지언정 그렇다고 하여 자살하지는 않았다. 그녀들은 기생의 방식으로 수절하거나 혹은 기생의 방식으로 훗날을 도모한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그녀들이 죽었다고 기록될 때에는 대개 같이 살던 남자가 죽었을 때이다. 그런데 이 작품의 창기는 이도 저도 해당사항이 없으며 문전성시를 이루는 기방 기녀일 때 죽는다. 그것도 기꺼이 죽음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다.

<협창>의 몰락한 양반 남성은 이 기생의 정인이었을 확률이 높다. 조선시대에 청루 출입은 표면상으로는 점잖은 양반이 할 일로 간주되지 않았다. 조선시대 기생들이 남긴 기록을 참고해 보면 <협창>의 남성 인물이 그 창기와 전폭적이고 배타적 관계에 들어갈 확률이란 매우 희박한 것이었다. 한양 최고의 기생은 이 같은 자신의 현실과 좌표를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어차피 인격적인 관계 맺기가 아니라 놀이의 주체이자 대상으로서 맺는 유희적 관계라면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행동했던 것 같다. 즉 그녀는 자신을 ‘꺾이지 않는’ 꽃으로, 욕망의 대상으로 기표화할 때만 양반 남성 손님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을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기방을 찾는 손님 그 누구에게라도 자신의 속마음을 내보일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양반 남성이 그녀의 정인이었다고 해도 그를 향한 연모의 정역시 혼자만의 감정으로 내장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작품에서 정인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으나 몰락한 그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따라가서 극진하게 최고의 물건으로 보살핀다는 것

27) 김경미·조혜란(역), 『19세기 서울의 사랑』, 여이연, 2003, 201-202.

28) 정병설, 2007, 82-103.

은 단지 그동안 기방에서 손님으로 모시던 사람에 대한 의리로 내린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밑에는 말 못 한 채 간직했던 연모의 정이 작동하고 있었을 것이며, 이옥이 선택한 생략과 침묵의 서술 방식은 이 ‘말 못 할’ 사정을 후경으로 하여 작품의 개연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정황을 서술하지 않고 간략하게 서술해 버리고, 일부러 심상한 것처럼 노출시키는 어휘 선택 등은 그녀가 그간 가려왔던 감정과 관련하여 읽힌다. 남자가 몰락하여 바다 저편으로 떠나자 그녀는 드디어 그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을 찾은 셈이다. 그녀는 물론 협창이고 관부였다. 그러나 그 양반 남성이 몰락하여 제주도로 떠남과 동시에 그녀는 단지 의로움이나 협기만이 아니라 그간 묵음으로 처리되었던 사랑을 드러낸다. 오랫동안 그녀가 홀로 지녀왔던 사랑의 힘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다. 그녀는 협창이고 관부이자 적어도 혼자만의 사랑을 간직했던 기녀였다.

IV. 결론 : 욕망으로서의 죽음

<협창>이 비슷한 소재를 다룬 다른 작품들과 차별화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서술에서 보이는 차이 때문이다. <협창>에서 선택한 죽음은 쾌락사이자 탕진사인 셈이며 남성 인물의 입장에서 보면 자포자기의 죽음처럼 보이기도 한다. 평결에서조차 <추향>처럼 ‘자손 보전’ 운운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어떤 이념적 가치를 위해 죽기로 결심했던 것이 아니다. 죽음의 양상이 이렇기 때문에 그녀의 죽음 역시 열(烈)이나 절(節)로 포상되기에는 거리감이 느껴진다.

조선시대에 죽음을 다루는 작품들은 그것이 사실 기록이든 혹은 허구적 서술이든 간에, 그리고 자살이든 아니든 간에 유교적 범주의 미감에서

그리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협창>은 이와는 차별화된 파격적인 죽음을 보여준다. 자신의 삶을 이런 식으로 소진해 버리는 것은 조선 시대의 윤리와는 부합하지 않는 선택이었다. 조선 시대의 유교적 가르침을 생각하면, '수신, 신독, 인내, 충효' 등의 단어가 떠오른다. 그리고 인내, 인고 등은 특히 여성과 관련하여 더 강조되었던 미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문학 작품 중에도 이 작품에서 서술하는 것처럼 그 순간 자체만을 위한 선택, 강렬하고 과감한 이미지 혹은 생을 방기해 버리는 듯한 태도 등은 잘 묘사되지 않는다. 어느 한 순간 죽음을 결정해도 그것은 대개 대의명분을 위한 것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바탕 독주와 호사로 생의 마지막 막을 탕진하고 단지 숨을 거두는 것으로 그 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서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들의 죽음은 오히려 쾌(快)의 극에 도달하고자 하는 죽음이며, 그들에게 혹은 그녀에게 죽음이란 마지못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소망스러운 상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누구나 진정 죽고 싶은 인간은 드물기에 인간에게 죽음은 그 자체가 불쾌(不快)이나 이 작품에서는 죽음 그 자체가 욕망의 대상인 것처럼 그려졌다. <협창>의 죽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려질 수 있었을까?

이 작품의 죽음이 적극적인 선택으로, 기꺼이 욕망하는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그녀에게서 비롯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양에서라면 그녀는 그 양반 남성과 기생과 손님 이상의 관계를 맺기 어려웠을 것이다. 자신의 감정조차 드러낼 수 없었을 터인데 그 남성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 당한 후 그에게 그녀가 들어갈 공간이 생겼다. 제주도에서의 그녀는 그와 함께 지내면서 독주와 섹스의 반복으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합일의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 한양에서라면, 그 남자가 그 지위를 유지한다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결코 그를 소유할 수 없었던 그녀가 제주도에서 그와 동반 자살함으로써 그의 죽음

을 소유한 셈이다. 성적 결합을 통해 죽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불연속적인 두 개체가 영원한 융합에 이르는 것 같은 기대를 갖게 한다.²⁹⁾ 이 같은 저간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그녀에게 이 죽음은 적극적인 선택의 결과였으며, 결핍되었던 욕망의 추구이자 삶이 연장이었고 동시에 대안이 없는 유일한 출구이기도 하였다. 그가 그녀의 계획에 순순히 따른 것도 대안이 없다는 판단에서 말미암았을 것이다.

<제망매가>의 화자는 사후에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지만 <협창>의 죽음은 세상 밖으로 빠져나가면 그뿐인 죽음이다. 내세관이 보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생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훌륭한 가치라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협창>에서의 죽음은 현재의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자 수단이다. 살아서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을 때 선택하는 결단인 것이며, 단지 포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열망이 자신의 남은 목숨보다 오히려 더 중요했기에 선뜻 선택한 죽음이었다. <협창>의 서술에는 삶에 대한 여한이 남아 있지 않기에 그렇게 죽었어도 비극적인 여운을 남기지 않는다. 죽음을 비극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삶에 대한 여한이 남아 있을 때이거나 또는 원치 않는, 예기치 못한 죽음일 경우³⁰⁾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에게 허여된 조건 속에서 남은 삶을 찰나적이며 쾌락적으로 소진해 버리는 것, 그녀에게는 자신의 전 재산을 기울여 자신의 삶을 화려하게 불살라 버릴 수 있는 과감함이 있었다. 기방 공간에서라면 거래의 대상이었을 퇴폐적이며 향락적인 성애가 제주도 공간에서는 존재의 방식이 되었으며, 그렇게 도달한 죽음은 한양 공간에서는 얻을 수 없는 삶의 완성이었다. 이옥은 <협창>에서 의(義)와 협(俠)을 기렸고, 협(俠)에 대해서는 다른 문인들도 더러 입전하였다. 그런데 이옥의

29) 조한경(역), 바타이유, 『에로티즘』, 민음사, 2008, 20-21.

30) 이종은 외, 1997, 141.

<협창>에서 보여준 죽음에 대한 서술은 다른 작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고유함이 있다. 죽음과 관련한 조선시대의 서술은 대개 유교의 자장 안에서 이루어졌다. 자살의 경우는 충효열을 기리는 서술로 포획되며,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 역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과 같은 엄숙함이나 의연함을 전제로 한 서술이 대부분이다. 개인의 욕망이나 좌절을 경유한 동반 자살을 다룬 이옥의 <협창기문>은 그런 점에서 개성적이며 정체를 발한다. 이옥의 <협창>은 중세적인 유교적 자장에서 벗어난 죽음의 양상, 적극적인 욕망으로서의 자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 김중태 외(역), 『국역 청성잡기』, 민족문화추진회, 200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필사본 『청성잡기』.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역), 『이옥전집』2, 소명출판, 2001.
 이신성·정명기 역, 『양은천미』, 보고서, 2000.

2. 논저

- 김경미·조혜란(역), 『19세기 서울의 사랑』, 여이연, 2003, 1-255.
 김영진, 「이옥 연구(1)-가계와 교유, 명·청 소품 열독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18, 한국한문교육학회, 2002, 341-363.
 김영호, 『조선의 협객 백동수』, 푸른역사, 2002, 1-347.
 박희병, 『한국고전인물전연구』, 한길사, 1992, 1-478.
 안대회, 「평양기생의 인생을 묘사한 소품서 녹파잡기 연구」, 『한문학보』14집, 우리한문학회, 2006, 273-307.
 안대회(편), 『조선후기 소품문의 실체』, 태학사, 2003, 1-406.
 이종은 외, 「한국문학에 나타난 한국인의 우주관과 생사관 연구」, 『한국학논집』30,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97, 131-231.

정병설, 『나는 기생이다』, 문학동네, 2007, 1-390.

조한경(역), 바타이유, 『에로티즘』, 민음사, 2008, 1-317.

한국고전번역원 사이트 <http://www.itkc.or.kr/itkc/Index.jsp>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a Death in Hyeop-Chang-Ki-Mun(俠娼奇聞)

Cho, Hae-Ran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features of a death in Hyeop-Chang-Ki-Mun(俠娼奇聞) written by Lee-Ok(李鉦). Hyeop-Chang-Ki-Mun(俠娼奇聞) is the story of a famous gisaeng(妓生: Korean geisha) of the days in Seoul. She committed suicide with a customer of her 'kibang'(妓房 gisaeng's entertaining place) and it gave a great shock to her acquaintances because he was a man who had fallen suddenly. He had become enmeshed in political matters in 1775(乙亥獄事), so degraded to a male servant at Je-Ju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She had followed him to Je-Ju and committed a joint suicide. This story is worthy of notice because it describes a joint suicide, which was very unusual manner of death in the proses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Most of the novels of the days had been dealt with the death within the four corners of Confucian morality. Compared with them, Hyeop-Chang-Ki-Mun dealt with a hedonic and decadent death, in which lovers died from abandoning themselves to sex with hard liquor.

It is interesting that the stories in Cheong-Seong-Jap-Ki(淸城雜記) and Yang-Eun-Cheon-Mi(楊隱闡微) are brothers to Hyeop-Chang-Ki-Mun's. This paper draws a comparison among these three stories in terms of the source of stories, guesses a real character and an actual event as a model of these stories and considers the features of Hyeop-Chang-Ki-Mun's narrative.

The death in Hyeop-Chang-Ki-Mun is not the result by Confucian morality, and not the result of the thing they can't control. It is a kind of desire, which voluntarily chose a death for being no way out in their lives. Hyeop-Chang-Ki-Mun made a description of the pleasures of the moment, the decadent atmosphere, and the death as a voluntary choice.

Lee-Ok regarded the gisaeng's choice as a kind of chivalry. But it is remarkable for her to commit suicide by a desire beyond Confucian morality.

Key Words Lee-Ok(李鈺), *Hyeop-Chang-Ki-Mun*(俠娼奇聞), *Cheong-Seong-Jap-Ki*(淸城雜記), *Yang-Eun-Cheon-Mi*(楊隱闡微), gisaeng(妓生: Korean geisha), joint suicide, jeon(傳), political matters in 1775(乙亥獄事), joint suicide, death, chivalry, hard liquor, sex, erotism

논문투고일 : 2009. 10. 18
심사완료일 : 2009. 11. 22
게재확정일 : 2009. 12. 04